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07 [25~27]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읽은 후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한다.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刑罰)로 추문하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외쳐 왈,

“부친은 애매한 시비를 엄형(嚴刑)치 마르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홀연 방안에 앉았던 노 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나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지라. 모두 이르되,

“불측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타.”

하고,

“불쌍한 소저는 이팔청춘에 몹쓸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徹天)한 원한을 뒤라서 씻으리오?”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 씨 자네는 그 날부터 말도 못 하고 세상일을 버렸더라.

(중략)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리다.”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향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연(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지면 잠깐 비움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 유모가 말려 왈,

㉡“그러하면 좋지 이념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

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읍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너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시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이 이 연유를 천자께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서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총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버를 모르고 님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며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시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않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왈,

“남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온 직첩을 받자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 “어찌하면 남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류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 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류동에 이르러 기험(崎嶇)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며,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②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춘연의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③ 승상은 노 씨의 시비를 통해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 ④ 춘연은 황명을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
- ⑤ 유모는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어 춘연이 총렬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리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며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③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정을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 ①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춘연의 억울함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군.
- ③ 춘연이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군.
- ④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자의 인정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군.
- ⑤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춘연의 환생을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하는군.

<보기>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 읽기 전 활동

작품 속에서 '여성 원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와, 조력자의 도움으로 인해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드러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중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환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며 읽으면 될 것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 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읽은 후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한다.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刑罰)로 추문하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외쳐 왈,

“부친은 애매한 시비를 엄형(嚴刑)치 마르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홀연 방안에 앉았던 노 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나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지라. 모두 이르되,

“불측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냐.” 하고,

“불쌍한 소저는 이팔청춘에 몸쓸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徹天)한 원한을 뉘라서 씻으리오?”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 씨 자너는 그 날부터 말도 못 하고 세상일을 버렸더라.

(중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계모 노씨와 친척 노태의 음모로 인해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이 자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말했듯 원한을 품은 여성 원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죽으면서 남긴 혈서를 읽은 유 승상이 노 씨의 하인들을 심문하던 중, ‘자연 알리이다’라며 ‘홀연 공중으로 외’치고, 노 씨가 피를 토하며 죽는 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앞에서 말했듯 원귀가 된 춘연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요?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었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었가?”

소저가 이르되, /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 “어찌 거짓말을 하리었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었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비읍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 유모가 말려 왈,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關子)*하되,

* 관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중략) 이후 원귀가 된 소저를 정 시랑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 시랑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누명’을 쓰고 ‘원혼’이 된 소저라도 다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소저는 이를 무시하고 정 시랑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고자 했지만 유모의 제지로 인해 들어가지 못한 정 시랑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여 ‘익주자사’에게 공문서를 보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독립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되도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기를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사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이 이 연유를 천자에게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사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총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敎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버지를 모르고 남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엿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매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천군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익주자사에게 소저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정 사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주자사가 사연을 전하고 정 사랑이 맞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소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정 사랑은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자신의 사연을 전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황제가 ‘직첩과 교지’를 내려 소저를 총렬부인으로 봉합니다. 이에 마음이 풀린 소저는 유모를 불러 황은이 태산 같으며 한이 풀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인하여 사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단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않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왈,

“남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은 직첩을 받자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 “어찌하면 남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룡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룡동에 이르러 기험(崎險)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니,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제야 정 사랑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소저는 정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소저를 살릴 방법을 묻는 정 사랑에게 소저는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찾아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이야기하고, 정 사랑은 이를 찾아오겠다며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소저가 환생하여 다시 가문 구성원으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여인이 ‘귀신’의 상태로 인물들과 만남을 거부하고, 만남을 동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죽어서 원귀로 남아 복수를 한 뒤, 정 사랑과 만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황제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받고 마음이 풀려 정 사랑을 만나고자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정을선은 ‘부인의 각골지원을 위로코자’한다며 ‘잠깐 비우고 위로함을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인은 춘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②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춘연의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며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소저에게 정체를 보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③ 승상은 노 씨의 시비를 통해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보고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노 씨의 시비를 심문했으나 ‘죄상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④ 춘연은 황명을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 온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

→ 춘연은 황명을 받고 ‘그제야 유모를 불러’ ‘사랑을 청하여 들어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⑤ 유모는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어 춘연이 충렬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고 있다.

→ ‘언관’은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고 있습니다. 유모가 읽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 “그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집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여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 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①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과거에 있었던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며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앞으로 ‘좋지 아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고자 했던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③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라며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 정을선을 용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④ ㉣: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좌우 창호가 겹겹이 닫혔거늘’이라며 공간 묘사를 통해 소저의 빈소가 매우 좋지 못한 환경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정을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적 지명인 ‘금성산 옥륜동’과 인물인 ‘금성진인’을 언급하며 ‘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성진인에게 약을 구해와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③

<보 기>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①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군.

→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문 밖에 나와 얼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더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기라’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②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춘연의 억울함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군.

→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게 원혼이 되었다’며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해달라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③ 춘연이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군.

→ 춘연이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다며 정 상공을 만나줄 것을 부탁하는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한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④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자의 인정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군.

→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충렬부인’으로 봉해지면서 천자가 ‘가부가 틀림 없는 줄을 밝히’는 것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⑤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춘연의 환생을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하는군.

→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첩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금성진인’을 찾아 춘연을 환생시키기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합니다.